

박근혜 대통령 당선

모든 네거티브 이겨내고 대권 거머쥔 '선거의 여왕'

■ 출마에서 청와대 입성까지

당내 갈등 속 압도적 득표 여권 후보 선출 '국정원 직원 댓글 의혹' 등 악재에도 꺾듯

18대 대통령이 된 박근혜 당선자는 지난 7월10일 출마에서 19일 대선 승리까지 4개월여 동안 수많은 난관에 직면했지만 흔들리지 않는 묵묵함으로 이를 극복하고 청와대의 새 주인이 됐다.

박 당선자는 지난 5년 동안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며 오랫동안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지켰지만 대선 승리까지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당내 갈등과 역사 인식 논란, 정수장 학회 문제,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의 급부상으로 위기를 겪어야만 했다.

박 당선자는 지난해 12월 당시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며

당의 전면에 나섰다. 디도스 공격 사태 등으로 위기를 겪던 당의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운 강령을 택하는 등 변화를 주도해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

박 당선자는 지난 7월10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1차 관문은 당내 경선. 하지만, 그에게 예선전은 큰 의미가 없었다. 총선 승리 후 당 안팎에서는 그가 후보가 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한때 경쟁 후보들이 완전국민경선을 요구하며 당내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지난 8월20일 열린 새누리

당 전당대회에서 86.3%의 압도적 득표율로 대선후보가 됐다.

그에게 첫 난관은 대선을 100일 앞둔 9월10일 나타났다. 박 당선자가 이날 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신 시대 사법살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에 대한 발언을 문제 삼아 야권과 언론의 공격을 받은 것이다. 경선 때부터 공격의 대상이 된 '과거사 문제'는 그에 대한 역사 인식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박근혜 대세론'을 흔들었다. 이에 박 당선자는 추석 연휴를 앞둔 9월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입장을 내놨다.

안 전 후보의 급부상과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단일화도 박 당선자에게는 고비였다. 하지만,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신의 스타일대로 선거운동에 몰입하면서 보수 세력의 결집을 이끌어냈다.

경선 과정에서 불협화음은 극복했으나 캠프 내 갈등은 박 당선자를 위협했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김종

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시장주의를 중시하는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립하면서 김 위원장이 경선 도중 업무를 보이콧한 것이다. 또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영입 소식이 전해지자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강력 반발했다. 이에 박 당선자가 직접 나서 교통정리를 하고나서야 논란이 수그러들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직후에는 야권은 물론 누리꾼들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1억 5000만원 짜리 국산 논란이나 신홍중 고집단 실천자와의 연루설 등 각종 루머도 급속도로 퍼졌다. 특히 민주당은 선거 막판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박 후보 측을 공격했다.

또 박 당선자는 지난 2일 강원지역 유세 도중 교통사고로 15년 동안 자신을 보좌해 온 이춘상 보좌관을 잃은 힘든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9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새누리당사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정세균 상임고문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당사 상황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당선 공신 호남 주역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주변엔 어느 대선 때보다 많은 호남 인사들이 포진해 선거를 도왔다.

우선, 박 당선자의 경제민주화 구상을 이끌었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전북 고창 출신이다. 행복추진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영 정책위의장도 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전북 고창이 고향이다.

김 위원장과는 다른 성향을 가졌지만 힘찬경제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광두 서강대 명예교수는 광주 출신이다. 박 당선자의 '경제 과외교사'로 불리며 박 당선자의 후보 시절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을 이끌었다.

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국방안보추진단장을 맡았던 김장수 전 국방장관은 박 당선자의 국방안보 정책을 책임졌다.

박 당선자의 최측근이자 '박근혜의 입'으로 통하는 이정현 공보단장은 곡성 출신이다. 그는 지난 4·11 총선에선 광주에 다시 출마해 비록 낙선했지만 40% 가까운 득표율을 보여 주위를 놀라게 했다.

지난 2007년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아 활동했고, 지금은 의과대학 조직인 30만명 규모의 국민희망포럼을 이끄는 이성현 국

김종인·김장수, 경제·국방안보 정책 브레인 이정현 공보단장·이상일 대변인 등 맹활약



이정현 공보단장 이상일 대변인 김광두 교수 주영순 의원

민소통본부장은 영광 출신이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말 박 당선자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 당시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한 호남 출신 의원들도 전국을 누비며 득표활동을 벌였다. 화순 출신으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을 역임한 김정록, 신안 출신으로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경력에 있는 주영순,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전 대한간호협회장인 신경림 의원 등이 바로 그들이다.

박 당선자 캠프 대변인실은 호남인사로 편성돼 있다는 평을 받을 정도다. 중앙일보 출신의 이상일(함평), KBS 출신의 안형환(목포), 같은 KBS 출신의 박선주(전북 익산) 대변

인은 모두 호남 출신이다.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지원하는 대변인 행정실의 김대정 차장도 함평이 고향이다.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중앙회 총재를 맡아온 임항순 전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대선에서 중앙선대위 100%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지역통합본부 총괄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수도권 호남출향인사들의 박 당선자 지지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 지역언론 대책을 총괄하고 있는 정영도 공보단 지역언론 팀장은 영광 출신이며, 지능총괄본부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일원 특별종교본부 부본부장은 곡성 출신으로 이 공보단장과 고향 친구사이다.

박 당선자의 보좌진에도 호남 인맥

이 자리 잡고 있다. 박 당선자의 메시지 실무를 총괄해 온 조인근 메시지실 부실장은 영암 출신으로 박 당선자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 당시 여의도연구소 기획조정실장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자리를 옮길 정도로 박 당선자의 신망이 두텁다. 그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박근혜 캠프' 정책메시지 총괄 부단장으로 메시지와 연설문 작성을 담당했다.

박 당선자의 비서실 멤버였던 이은룡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전북 전주)과 김경재 국민통합위원회 기획담당특보(순천) 등 민주당 통합당에서 건너 온 호남 인사들의 노력이 있었다. 또 비록 캠프에 몸을 담고지는 않았지만 현화갑 전 민주당 대표(신안)의 지지선언도 호남 출향 인사들의 표심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만세" 민주 "충격"

■ 여야 반응

18대 대선 결과에 여야의 회비가 고차했다. 새누리당은 "정권 재창출은 예견된 결과였다"며 승리를 자축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승리를 낙관했던 예상과 달리 정권교체 실패라는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새누리당=이날 오후 6시 방송 3사 가중조사 결과를 일제히 발표하자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선 기다렸다는 듯 함성과 환호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당사 주변은 박 당선자의 지지자 수천 명이 불러들면서 흥분의 도가니로 변했다.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와 선대위 간부들은 당사에 마련된 대선종합상황실에서 TV 모니터를 통해 결과를 지켜본 뒤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성을 지

르며 자축했다. 당직자들은 또 탄원들과 덕담을 주고 받으며 포옹을 하기도 했다. 당직자들은 특히 '댓글부대 운영 의혹', '전두환 전 대통령 6억원 논란' 등 선거 전 내내 시달렸던 범야권의 네거티브 공세를 곱씹으며 소회를 털어놓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는 "정권 재창출이 좀처럼 믿기지 않는다. 응집력에서 우리가 이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견된 결과였다"며 자축했다.

박 당선자는 이날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TV를 통해 투표결과 방송을 지켜본 뒤 당선이 확실시 된다는 보고를 받고 여의도 당사로 자리를 옮겼다. 박 당선자가 모습을 드러내자, 당직자와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연호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민주통합당=민주당 당사는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다. 박지원 원

내대표·정세균 상임고문 등 당직자들은 출구 조사가 발표된 순간 당혹한 표정으로 충격의 침묵에 쌓였다. 한때 투표율이 75%를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직자들은 정권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지지자들은 출구조사 결과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방송 3사의 예측조사가 오차범위 안에서 별 차이가 없어 TV 투표결과를 보며 역전의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YTN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문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고무된 표정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표 차이가 더욱 벌어지자 당직자들은 한두 명씩 자리를 뒀으며, 개표 결과 박 당선자가 확정되자 당직자들은 이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종필기자 golee@kwangju.co.kr

경매 NPL물건 특수물건

▶비법 배우면서 투자
▶1:1 개인 스테디
▶1인 1물건 추천
▶회비 1,100만원

투자자몹

▶단독/공동투자 가능
▶투자금 1억원 이상
▶기간 : 1년 정도
▶법적 보장/지분 등기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부동산 거래,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상담전화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상담전화 김종원 이사 010-8227-77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기통 [근린시설 4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652㎡, 건2387㎡ 감평가 14억, 최저가 4억5천 나주남평 [주유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4428㎡, 건5533㎡ 감평가 10억4천, 최저가 6억8천 전북김제 [물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8076㎡, 건5004㎡ 감평가 25억, 최저가 6억5천 화순이양 [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6536㎡, 건2056㎡ 감평가 9억8천, 최저가 2억8천 충정로 [근린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215㎡, 건306㎡ 감평가 4억6천, 최저가 2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박시설 [치병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704㎡, 건2042㎡ 감평가 32억, 최저가 22억 신안말매 [합집, 판매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4706㎡, 건1123㎡ 감평가 18억, 최저가 8억 전주시덕진구 [유류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665㎡, 건988㎡ 감평가 11억4천, 최저가 5억8천 보성읍 [상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685㎡, 건763㎡ 감평가 7억2천, 최저가 1억5천 목포대양동 [수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1786㎡, 건3408㎡ 감평가 4억8천, 최저가 1억7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구 대현동 [2층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 1506평, 건물 1031평 감평가 39억8천, 매매가 25억5천 북구 대현동 [2층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 3289평, 건물 1601평 감평가 52억4천, 매매가 36억1천 목포 상동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170평, 건544평 감평가 18억6천, 최저가 13억1천 무안 망운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257평, 건346평 감평가 11억, 최저가 6억2천 영광법성 [근린상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1106평, 건1297평 감평가 34억8천, 최저가 24억4천 목포 상동 [근린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1697, 건2044평 감평가 18억, 최저가 62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정동 [창기외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 330평 건물 1367평 감평가 41억5천, 매매가 20억의협결정 여수해동 [근린상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136평, 건513평 감평가 15억, 최저가 10억5천 구례 용평 [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1295평, 건3633평 감평가 3억, 최저가 7억4천 서구 치평동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213평, 건617평 감평가 32억, 최저가 22억4천 목포 상동 [근린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1697, 건2044평 감평가 22억7천, 최저가 4억6천

임대 및 매매 김수희 공인중개사 010-8567-4600

▶ 12월31일 오픈 예정인 (주)세일신용정보에서 업계최고의 대우로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 찬모(여)2명, 실컷이(여)1명, 출서빙6명, 매니저(남,여)2명, 매점(여)1명, 경리(여)1명, 영업부(남,여)2명
 * 복리후생 : 4대보험, 퇴직금, 월4회휴무, 급여 : 업계최고 대우 및 성과상여금
 * 근무처 : 나주시남평읍 통림리 171번지 서류접수시 면접, 상담가능(시간예약) H.010-7570-7525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개월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구주택(원룸, 투룸, 소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현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 ~ 300평, 용도지역: 자연녹지, 용도 : 주차장
- 최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용 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대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점, 농지전용 완료, 매대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현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차고용도로 적합
- 비어있던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황룡면, 장성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무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